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입니다. 판공성사를 통해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는 복된 대림시기 맞으시기 바랍니다.
-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 대림시기 동안 매주 주일미사 전후로 성사를 보시고 판공성사 확인표에 성함, 세례명, 구역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합동 판공성사** 안내
 - 일시: 12월 21일(대림 4주일) 미사 전후
 - 신시내티 한인본당 신부님께서 판공성사를 집전하십니다.
- ◆ **자선주일(대림 3주일) 2차 헌금** 안내
 - 일시: 12월 14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
 - 모금된 헌금은 본당 빈첸시오회 봉사활동 기금으로 쓰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신임 구역장** 안내
 - 김제준 구역: 김영천 알렉산델
 - 정하상 구역: 김오경 안드레아
 - 황석두 구역: 고상식 야고보
 - 이호영 구역: 박귀영 빈첸시오
 - 김효임 구역: 안유신 레오

- ◆ 2009년 월간 **매일미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광광주 예로니모 형제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김제준 구역 모임**
 - 일시: 12월 13일(토) 오후 6시
 - 장소: 구역장 자택 (14-218-2662)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12월 13일(토) 오후 6시
 - 장소: 이인표 형제님 댁 (614-799-0743)
5882 Haddler Court
Dublin, OH 43016
- ◆ **성모회에서 \$5,000**를 성전건립기금으로 봉헌하였습니다.
- ◆ **친교 준비 봉사자**
 - 12월 7일: 이호근
 - 12월 14일: 손보영
- ◆ **12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제준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34.00
교 무 금	\$1,230.00

- 교 무 금: 윤형석 신현대 김명호 임상순 한석철



성 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대림 제2주일 December 7, 2008



<예수님의 세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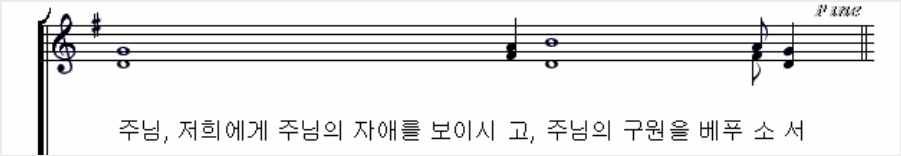
520년경, 모자이크, 아리안 교회의 세례당, 라벤나, 이탈리아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40,1-5.9-11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제 2 독서 베드로2서 3,8-14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1-8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90단 1명	2,725단 20명
이호영	157단 2명	14,674단 88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40단 1명	7,270단 76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120단 1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07단 5명	2/22/04-11/30/08 (250주)

☞ 총누계: 205,919단 12,707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2월 7일	12월 14일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89 ♫ 봉헌: 214
 ♫ 성체: 161 163 ♫ 파견: 93

대림시기를 맞이하며 본당 빈첸시오회 기금마련을 위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21)

"한국 천주교회는 대림 3주일을 자선 주일로 정했습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자선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관장 자캐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앓은뱅이와 절름발이와 소경과 같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던 장애인들, 하늘에서 내리는 벌로 여기던 나병 환자, 악령 들린 이들마저도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예수님처럼 모든 형태의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선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자선 활동은 쓰고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유와 품위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올바른 자선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주교구 "자선주일 담화문"에서 발췌-

우리 콜럼버스 한인 공동체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선의 일환으로 빈첸시오회가 설립되어 Homeless를 위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신부님 때 최회장님의 발기로 시작된 빈첸시오회가 수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선"의 문화가 아직도 신앙생활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물론 소수의 신자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기에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자선의 중요성을 신앙인으로서 되돌아보며 빈첸시오회 기금마련 2차 헌금에 정성을 보태주시고, Homeless를 위한 급식봉사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신자 분들의 각 가정에도 깃드는 대림시기를 보내시도록 저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콜럼버스 한인 천주교회 지도신부 김충귀(베드로)